

‘매천야록’ 등 황현 유산 4건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오하기문’ ‘매천 황현 시문’ ‘대월헌절필첩’ 등록 예고 “우국 충절 지식인 면모와 구한말 국난의 위기 상황 담겨”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나라는 이미 망했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옛일 생각하니
글이나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의 ‘절명시’)

1910년 8월 조선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구례에 은거하던 한 선비가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자결한다. 그 선비는 바로 우국지사 매천 황현(梅泉 黃玄·1855~1910)이다.

황현은 죽음을 결심하면서 거창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의 작품에는 망국의 울분과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구국애민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울림으로 다가온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등 유산 4건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천야록을 비롯해 ‘오하기문’,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목·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 ‘대월헌절필첩’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말삼재(韓末三才) 호남삼걸(湖南三傑)로 이름을 날린 황현은 자신이 직접 지은 시문과 1888년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한 교지(敎旨) 등을 남겼다. 광양 출신인 매천은 젊은 시절 상경해 강위·이건장·김택영과 교류했다. 구례로 돌아간 뒤에는 평생 국운을 걱정하며 책을 읽고 저술 활동을 했다.

먼저 이번에 문화재 등록 예고된 ‘매천야록’은 그

의 대표 저서다. 흥선대원군 집정부에서 약 47년간의 역사들을 기록한 친필 원본으로 모두 7편으로 구성돼 있다. 구한말 위정자들의 비리와 비행, 일제 침략상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담겨 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다.

특히 제1, 7책에 동생 황원(1870~1944)이 기술한 제책 관련 내용은 황현의 친필 원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매천야록’의 저본(底本·초고)으로 추정되는 오하기문(梧下記聞)은 오통나무 아래에서 글을 기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역사적 사실과 의병항쟁을 비롯한 항일활동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친필 시문과 지기(知己)들과의 서신, 신문기사 모음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목·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은 황현의 삶과 우국정신을 실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가운데 교지(왕명서)·시권(답을 적은 종이)·백패통(과거 급제 증서)은 매천의 과거 급제와 관련돼 있다.



백패통



매천야록 1

당대 신문기와 문장가들과의 교류 서간은 당대의 위기 상황에서 지식인과 사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은 절명시 4수가 담긴 첩이다. 양면으로 돼 있으며 서간과 상량문 등이 포함돼 있다. 매천은 절명시를 남기고 사랑채였던 대월헌(待月軒)에서 순절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매천의 유물 관련 외에도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1860~1935)의 한글 가사집 ‘윤희순 의병가사집’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으며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광주 공연

14~24일 유·스퀘어 문화관

한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사진)’가 광주 관객을 찾아온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선보인다. ‘김종욱 찾기’는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공연을 거쳐 2006년 6월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첫 공연을 올린 이후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열며 100만 관객을 모았다.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형제는 용감했다’ 등을 흥행시킨 광주 출신 장유정 감독이 각본과 작사를 맡았다. 장 감독은 지난 2010년 자신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임수정·공유 주연 영화의 메가폰도 잡았다. 영화에는 김무열, 오만석, 신성록, 엄기준 등 역대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전아리 작가의 손을 거쳐 소설로도 출간됐다.

‘첫사랑’을 소재로 한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관객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연일 매진행렬을 이어갔다. 1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인기스타상을 수상했고 2007년 1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는 작사·극본상, 남우조연상, 남우인

기상, 여우인기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11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2018 대한민국 한류대상 뮤지컬상’도 수상했다. 2013년 중국 공연에 이어 일본에서도 라이선스 공연을 하고 있다.

‘김종욱 찾기’는 첫사랑을 찾아 나선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티격태격 갈등을 유쾌하게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다.

인도 여행길에 오른 ‘그 여자’는 비행기 안에서 완벽한 턱소와 낫발을 가진 ‘혼남’ 김종욱을 만난다. 인도 사막에서 김종욱과 재회한 그녀는 갈렐한 운명의 이글림을 느끼며 김종욱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인도에서 돌아온 후 김종욱과 엇갈리고 만 ‘그 여자’. 9년이 지난 후에도 김종욱을 잊지 못해 결국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를 찾아간다. 첫사랑 김종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광주공연은 황두수 감독이 연출을 맡고 정명진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다. 흥재이, 박영인, 김상협 씨 등이 출연한다. 8세 이상 관람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휴무). 전석 4만5000원. 문의 1644-675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8일 ‘천원의 낭만’ 무대에 ‘선 클라비어’ 오른다

1000원에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의 낭만’ 무대에 피아니스트 그룹 ‘선 클라비어(사진)’가 오른다.

104번째 천원의 낭만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선 클라비어(鮮·Klavier)는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같은 대학원 출신 피아니스트들이 모인 만든 단체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4명의 피아니스트가 2대의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고, 1대의 피아노에 피아니스트 3명이 함께 연주하는 보

기 드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시벨리우스의 대표 교향시인 ‘핀란드야’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드보르작, 아렌스키 등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날 무대에는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협연한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10년째 매달 한번씩 열고 있는 천원의 낭만에서는 국악·클래식·재즈·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예매 문의 062-226-20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열정과 냉정

트리오 F.A.E 창단연주회
14일 광주 금호아트홀

광주문화재단 10기 통신문 모집
18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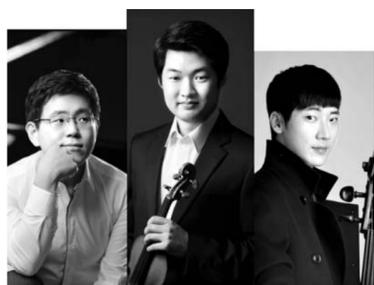
트리오 F.A.E의 창단연주회 ‘열정과 냉정’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트리오 F.A.E(Frei Aber Einsam)는 독일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 이재완,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 첼리스트 최승욱으로 구성됐다.

피아니스트 이재완은 서울예고, 연세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예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신여대·추계예대 등에 출강하며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와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목포대·전남예고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향 수석 단원인 첼리스트 최승욱은 파리 국립음악원과 독일 예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레오폴드벨랑 국제콩쿠르에서 2위를 기록했다.

F.A.E는 이날 스승과 제자 사이인 독일 작곡가 슈만·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을 각각 연주한다.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4개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피아노 트리오 1번 작품 63’은 슈만 자신이 우울



트리오 F.A.E 이재완·윤성근·최승욱(왼쪽부터)

할 때 작곡했다고 말했듯이 그의 음울한 낭만성이 잘 나타나 있다.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작품 8’은 슈만이 광기에 사로잡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브람스가 처음으로 완성한 주요 작품이다. 브람스가 느끼는 인생의 허무와 달관의 정서가 녹아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소식과 정보를 알릴 제 10기 통신문을 모집한다.

10기 통신문은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한다. 매월 1회 편집회의를 거쳐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다. 취재 글, 사진과 영상은 온라인 뉴스레터 ‘울림’에 수록돼 회원들에게 발송되며 우수 기사는 12월 제작될 결과자료집 ‘울림10’에 게재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민으로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다. 일반통신문 지원자는 자유 주제의 글과 촬영사진, 영상통신문 지원자는 2분 내의 촬영·편집한 영상 제작물과 제작물 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jarte@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68/57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